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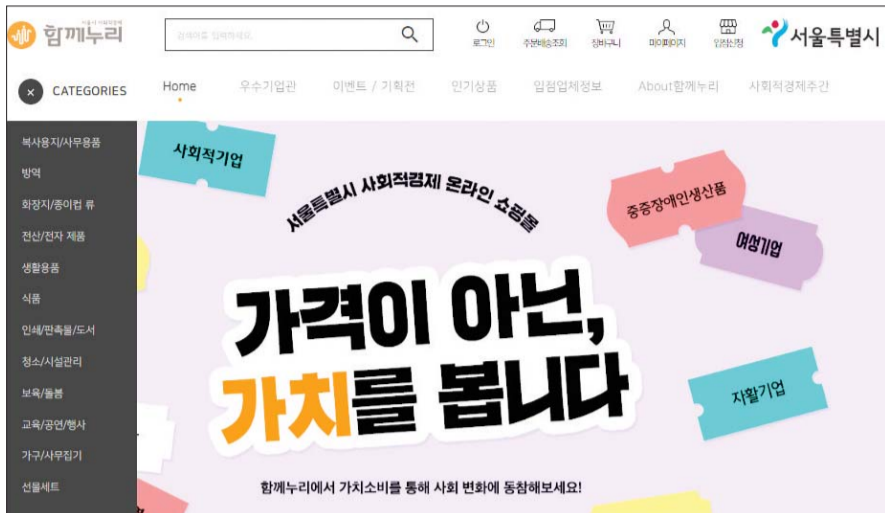
공정도시 서울 만든다... 노동자 지원체계 등 5대 과제 추진

농수산 유통환경 조성 등 핵심 취약계층 노동 환경 개선 총력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서울시가 약자와 상생하는 공정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최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자 지원 체계 구축 ▲소상공인 회복 지원 ▲상권 발전 기반 마련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농수산 유통환경 조성이라는 5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우선 시는 취약계층의 노동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시는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20곳, 공공조달 용역업체 20곳, 민간위탁시설 60곳을 포함 총 100곳의 공공사업장에 마을노무사를 투입해 노동 환경 개선 컨설팅을 벌였다. 노무사들은 현장에 찾아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를 점검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함께누리물

뒤 취업규칙 미개정, 필수구비서류 미비, 안전보건 관리 미흡 등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민간 중소기업장 131곳을 대상으로는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직원관리 서류작성, 노무관리 방법 안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복구비를 지급해 일상

으로의 빠른 복구를 도모했다. 시는 작년 8월8~17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명에게 각각 500만원(긴급복구비 200만원·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시 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했고,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복구비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재난지원금과 수재의연금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배달앱사와 공동 운영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탤다. 시는 앱에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했다. 뽕겨요·위메프·떡볶이 등 7개 배달앱사는 배달앱 개발·운영과 가맹점 관리, 2% 이하 중개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 초기인 2020년 10월 0.72%였던 시장 점유율은 작년 9월 3.09%로 4배 이상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3만592개소에서 6만144개소로 2배, 매출액은 57억9800만원에서 439억5600만원으로 7.6배 늘었다. 시는 올해 '가칭'서울배달'로 제로배달 유니온의 명칭을 변경한 후 서울 공공배달 서비스의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대 교체 지원, 안전과 위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했다. 지난해 시는 고객선 준수, 품명 및 원산지 표기를 개선하고자 10억원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이 4곳의 판매대를 교체했

다. 시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 지난해 시는 사회적경제 정보 플랫폼 '캐빈닷넷'을 운영해 가치소비 관련 101개 콘텐츠를 게시하고 210여개 기업을 소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에 690개 기업을 입점시켜 1만4101개 상품을 선배 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도 지속 운영했다. 시는 4차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을 키우고자 지난 2016년 12월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문을 열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농업과 기술 융합, 판로 확보, 투자 유치,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 입주 기업들은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누적 매출액 1015억원, 투자유치 375억원, 신규 고용 802명, 지적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 517건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김동연표 공약 확정... 38조 투입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과제 GTX 연장·신설 등 주요사업 포함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항 295개를 최종 확정하고 38조44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에 확정된 공약에는 예술인기회 소득, 경기청년캠퍼스 및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추진, GTX 연장 및 신설 등의 주요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제안과제를 바탕으로 실국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배심위원단의 공약과제 조정, 전문가 자문, 도정혁신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약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혁신·기



2023 기획경기 워크숍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회·통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과제를 민선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 5조 166억 원과 도비 8조 865억 원을 포함해 총 38조 4,4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먼저, '더 많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116개 실천 과제에 3조 8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가구 신규 모집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 확대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사업 공고일(1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서울복지

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종선정된 가구에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외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2

1월 10일 (화) 음력 : 12월 19일

수도권 날씨 -3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0/5, 동두천 -8/7, 가평 -7/7, 파주 -10/6, 서울 -3/7, 양평 -7/7, 인천 -3/4, 수원 -2/7, 용인 -2/7, 평택 -7/7,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찾은 싱가포르 대표단, 교통기술 체험

탄소 중립 실현 등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교류 강화

서울시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전국교통노동자조합 대표단에 시의 선진 교통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수소버스 확대와 교통 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양 도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 시스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싱가포르의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 계획·설계를 총괄하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과 역무원·정비기술자 등 운수업체 회

원을 보유한 싱가포르 전국교통노동자조합 관계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대표단은 은평공영차고지를 찾아 전기버스 충전 시설 등 버스 운영 현장을 시찰했다. 또 서울시 버스, 지하철, 도로 등 교통 및 소통 상황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토픽스(TOPIS)를 방문했으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에도 탑승해 서울시의 첨단 교통 시스템을 몸소 체험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대만,美의원 등 포함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초청받아 /사진 뉴시스
▲FTX 새 경영진, 창업자가 뿌린 기부금 회수 나서

▲중국, 연초부터 대만주변 실전훈련군용기 57대 동원 무력시위
▲새해 우크라이나 우세 이어가지만 결정적 승리는 어려워



▲브라질 시위대 대통령궁·의회·대법원 점거 /사진 뉴시스
▲세네갈서 버스 두 대 충돌해 40명 사망...사흘간 국가에도